

“호남 물갈이·중진 용퇴론 정해진 것 없다”

■ 김상곤 새정치 혁신위원장 ‘신중에 신중’

“혁신 방향 먼저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인선”

오늘 최고위서 지도부와 논의…내달 초 구체적 혁신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의 칼자루를 쥐게 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신중한 접근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선부론 속도전으로 논란을 자초하기 보다는 혁신 방향에 대해 두루 의견을 수렴하는 등 튼튼한 기초공사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 위원장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혁신위원 인선에 있어서도 ‘혁신의 방향을 먼저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인선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외부 인사 비율과 계파별 안배 등을 혁신안이 구상되면 맞춰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이번 주 내에 혁신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호남 물갈이’, ‘4선 이상 용퇴’ 등 구체적인 공천개혁안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활동 초기부터 계파별·지역별 공천 등을 언급할 경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단 김 위원장은 27일 최고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추인을 받고 지도부들과 혁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는 최고위 추인 직후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안의 큰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2일 예정된 의원 워크숍에서도 의원들에게 보다 구체화된 혁신안을 알리기로 했다.

동시에 상임고문단과의 회동은 물론 초재선 의원 모임이나 평당원 모임 등에 참석, 혁신을 위한 소통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출범이 늦어지면

서 혁신의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쇠신의 타이밍을 잃으면서 결국 용두사미의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쇠퇴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차일 피일 시간을 끌다가는 혁신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친박실세 6인 수사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단 및 법사위원들은 성원중 리스트에 거론된 이완구 전총리·홍준표 경남지사·박주기 수사 규탄 및 친박 실세 6인방 엄중수사 촉구를 위해 대검을 항의 방문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측에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겠지만 혁신을 단행할 때는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도부도 김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기로 한 만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분간 그의 행보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필요한 때가 되면 ‘깊이 있는 혁신’을 받쳐주겠다는 것이다.

일단 개인 사무실을 이용하는 김 위원장에게 국회나 당사에서 사무실을 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결정 사항을 최고위가 그대로 받아

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물갈이론과 관련, 문 대표는 “혁신위가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도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직접 말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와 영역이 겹치는 공천혁신추진단의 역할과 관련, 원혜영 추진단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진단이 당헌당규에 의거한 혁신을 한다면, 혁신위는 모든 것을 새롭게 논의하는 것”이라며 “혁신위가 결정을 내리면 추진단은 여기에 맞춰 공천안 등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지원 전 원내대표 작심 발언

“호남·486 의원 물갈이론 명확한 근거·규정 있어야 획일적 추진엔 분란 초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6일 혁신위 출범을 앞두고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 물갈이론’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혁신 공천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획일적으로 호남 출신 또는 486 의원들을 어떻게 (물갈이를) 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혼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호남만 하더라도 선거 때가 되면 표를 달라고 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무시당하는 일이 불만스럽다”며 “호남, 486 이렇게 찍어서 물갈이 대상으로 정해놓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당내 분란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솔직히 우리 당이 분당의 위기에 처한 것도 사실 아니냐”며 “일부에서 계속 분당,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실을 주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갖고 물갈이 공천, 개혁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혁신위가 아직 구성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도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직접 말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계파 등록제’ 도입에 대해 박 전 원내대표는 “계파를 분명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과연 계파등록제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이 친노-비노 구도 등 고질적 계파문제에 당의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편파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그러한(편파적) 일을 하지 않을 때 지도도 적극 참여한다는 자세”라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아유를 받은 것과 관련, “군중심리로 한 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오래 있는 일로 가볍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내년 총선 당적보유 출마 가능

‘공갈’‘막말’ 논란으로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등의 파문을 일으켰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 동안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나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표를 실시한 결과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친노와 비노 진영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징계라는 반응을 나오고 있다. 우선 정 의원이 1년 동안 최고위원직과 지역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노 진영의 중징

계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당원 자격정지의 징계를 피하면서 정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의 길을 열어줘 친노 진영의 선제 요구도 받아들였다는 평가다. 그동안 친노 진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 최고위원의 사과와 자숙을 통해 일단락됐다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반면 비노 진영에서는 정 최고위원이 당의 통합을 심대하게 저해했다며 당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 간사 위원인 민홍철 의원은 “징계 수위를 정하는 1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당직 자격정지가 결정됐다”며 “2차 투표에서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고수와 정청래 의원에 대한 징계로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3명만이 남게 되면서 최고위원회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꼬이는 文, ‘노건호·희망스크럼’ 어떻게 돌파할까

안철수 전 대표와도 계속 ‘엇박자’…계파대립 여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당 내분 수습을 위한 행보가 자꾸 꼬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의 돌발 발언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다가, ‘희망스크럼’을 두고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인선하면서 4·29 재보선 패배로 인한 내용을 수습하고 당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 문 대표의 구상이었지만 돌출변수가 잇따라 터지면서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우선 지난 23일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건호씨가 새누리당 김부성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사태의 여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비노 인사로 분류되는 송호창 의원은 26일 KBS라디오에 나와 “얼마나 억울했으면 유족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했겠나”라면서 “표현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정제된 방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추도식장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비노(비노무현) 인사들에게 욕설과 야유를 퍼부은 일이 겹친 것도 문 대표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비노진영의 ‘친노 패권주의 청산’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친노진영이 여권과 비노진영을 동시에 공격한 것으로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상가상으로 문 대표는 대선주자 협의체인 ‘희망 스크럼’을 두고 안 전 공동대표와는 이견을 거듭 노출하면서 계파간 단합

이 쉽지 않음을 드러냈다. 문 대표는 지난 24일 박원순 시장과 회동한 뒤 ‘희망스크럼’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박 시장, 안 전 대표, 그리고 제가 함께 또 만나서 의논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한번 보자는 정도였지 ‘희망스크럼’이나 안희정 지사나 그런 말은 전혀 없었다”면서 문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부인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는 희망스크럼이 새로운 기구인 것처럼 비쳐지면서 유보적으로 말을 한 것”이라면서 “새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수습을 시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매 각 공 고

“요양병원” 운영자를 모집합니다

(매매 및 투자자)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1번지 (40m 대로변 접면위치, 건강관리협회 건너편)

대 지: 522.3㎡(158.15평)

연 면 적: 2,073.86㎡(627.96평)

층 수: 지하1층, 지상8층

건축물용도: 병원(요양병원)

허 가 번 호: 2013-건축과-신축허가-108호(2013.10.18)

토지소유자: 서양새마을금고

건 축 주: 서양새마을금고

공사완공예정일: 투자자 계약 후 3개월 완공 예정

※ 매각사유

- 대출관련 유입물건을 매각합니다.
- 유입당시 공정을 40% 진행되어 있는 요양병원 건물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하신분께 매각하고자 합니다.

※ 계약즉시 토지, 건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양새마을금고

전화문의 010-6703-4899

2015년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세미나

- 신 개발지 뜨는 지역 집중분석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부자야, 부자야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고보면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부자야, 부자엄마들을 다음과 같이 초대합니다.

코아 부동산 재테크 상담소에서 불합기 소액투자자 가능한 실전 토지 투자법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강의내용

- 토지 시장의 현황과 전망
- 개발지에 성공 투자법
- 토지의 가치 판단법
- 부동산투자 맥을 잡아라
- 잠재기에 대처하는 부동산 시장
- 도시가 형성된 과정을 통한 미래분석
- 서남해안의 대야변 집중 분석
- 남악 도청 2차 오피스지구 미래분석

일정과 장소

- 2015. 05. 27(수), 1부 오후 2시~4시, 2부 오후 7시~9시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603번지 J타워 3층 (첨단 2지구 북광주농협과 광주은행 사이)
- 예약 문의: 062)576-7955

주 관 코아토지 재테크상담소

김동태 회장 (1부)

박중락 대표 (2부)

※ 공과 열정으로 가족처럼 일하실 프리랜서 여직원 〇〇명을 모집합니다.

- 코아토지 재테크상담소 감사
- 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 전남지방경찰청 외래교수
- 코아토지 재테크상담소 대표
- (주)해남농장 대표이사